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안전은 동적인 행동이  
우선 되어야...



삼성전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첨단기술, 첨단부품”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이 중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공장은 휴대폰용 기판, FCBCA 등의 기판과 MLOC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오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양산 전문기지에서 개발과 생산 등 현지 완결형 체제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준승 안전관리자.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이듯, 안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인 삼성전기주식회사를 만들고자 그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삼성전기주식회사 부산공장 유준승 안전관리자

취재 · 사진 | 임재근 기자(taru@safety.or.kr)

### 안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올해로 마흔 네 살의 유준승 안전관리자는 삼성전기 부산공장 환경안전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19년 전 울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PSM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안전과의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거대한 장치산업인 화학공장은 24시간 설비를 운영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교대근무도 필수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이 많았다. 그 위험요인들이 자칫 폭발이라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항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됐다. 이에 하루에도 여러 번 현장을 누비며 ‘철저한 점검’을 일상화했고, 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설비 및 공정을 개선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뿐 아니라 환경, 건축, 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법 기준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열의’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공장의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고, 그만큼 안전관리자로서의 보람도 느끼게 됐다. 여기에 다방면에 걸친 이론과 실전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경험’이라는 값진 능력도 얻을 수 있게 됐다.

### 기본만 지키면 대부분의 재해 예방할 수 있어

5년 전 화학공장에서 이곳 삼성전기 부산공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환경안전그룹에서 일하게 된 그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안전,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해 왔다. 삼성전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부품기업인 만큼 안전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투자 규모 또한 일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역시 휴먼에러에 의한 재해인데, 이곳은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인적 요소에 따른 위험이 타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는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어렸을 적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가정안전, 예를 들어 ‘건널목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도록 하라’,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마라’, ‘좁은 곳에서 뛰지마라’ 등은 학교에 다닐 때나 직장에 다닐 때나 모두 지켜야할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본’을 너무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무엇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칙부터 잘 지키자고 강조합니다.” 평소 기본적 안전수칙만 제대로 잘 지키더라도 사고를 당할 위험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근로자들에게 이 ‘기본적 안전’의 개념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늘 하루도 사업장 곳곳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전의식 확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은 모두 불안정한 상태의 연속이다. 특히 제품생산을 위한 현장은 불안정한 요소로 둘러싸여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지난해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재해율은 0.7%, 사망만인율은 1.57로 집계됐다. 100명의 근로자 중 재해를 당하는 근로자는 0.7명, 재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은 100명당 0.0157명이라는 뜻이다. 어찌 보면 매우 낮은 확률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 당사자에게 이러한 확률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 재해를 당하거나 재해로 사망자 근로자에게는 재해율과 사망률이 모두 100%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고는 의례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고로 누군가는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수많은 위험요인을 전부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적 요인에 따른 위험은 사람의 생각여하에 따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은 평생 가지고 가야할 행동 철학

안전관리자의 고뇌는 많이 알려져 있다.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다보니 많은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업무에 회의를 느끼거나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관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를 관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이 결국 어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명감만 확실히 갖는다면 더 없이 소중하고 소중한 일이 바로 ‘안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버릇이 든다면 평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만, 나쁜 버릇이 든다면 언젠가는 그 자신을 위험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전, 이제 직장에서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습관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안전을 정의하고 또 추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 삼성전자 부산공장 환경안전그룹

